

저축은행 작년 순익 악화... 예금자보호금액 확대 등 요구

79개사 순익 전년비 19% 감소
연체율 0.9%p 올라 3.4%로 상승

업계, 건전성 지표 문제 없지만
금융환경 대처 규제 완화 목소리

저축은행의 작년 실적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9곳 저축은행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1조 5957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3689억원(18.8%)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율 또한 3.4%로 지난 2021년 말(2.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리테일(소매 금융)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 금액 확대와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지난해 실적이 부진하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시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호금액 확대가 저축은행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금융상품'에 한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보호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은행에 비

해 금리를 1~2%p 더 지급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 관측이다.

예금자보호금액 확대 요구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만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저축은행권 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만큼 영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이상을 지역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 해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총 대출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 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등 6곳으로 나뉘져 있다. 상위 10곳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업구역 규제 완화의 경우 '서민 금융기관'이란 저축은

행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신호 등을 점검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에도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 당기순이익 또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추가 총당금 적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79곳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실제적립률은 법정 기준치인 100%보다 13.4%p 높은 113.4%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또한 14.5%로 전년 동기(12.6%) 대비 1.9%p 올랐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년간 건전성에 방점을 둔 운영을 해왔다"며 "건전성 지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함영주 "이자·수수료 체계 원점에서 재검토"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1주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사회 구성원과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또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그룹임원 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맨 앞줄 가운데)이 그룹사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 사회 등 전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실천방안으로는 ▲상생 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業)의 본질인

신뢰 회복 ▲모든 사회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디지털 금융 선도 위한 인재육성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그룹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우리금융 지구촌 소등행사 '어스아워'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구촌 소등행사 '2023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지구를 뜻하는 어스(Earth)와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Hour)를 합한 용어로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소등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2007년 호주에서 시작된 어스아워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시민들이 동참하고 뉴욕 타임스퀘어, 프랑스 에펠탑 등 1만8000여개 세계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2년에 이어 우리금융그룹 본사 건물을 비롯해 ▲우리금융디지털타워 ▲우리금융상암타워 ▲우리금융강남타워 등 그룹 주요 사업장이 동참해 건물 내의 모든 조명을 한 시간 동안 소등했으며 사내 홍보를 통해 전 임직원들이 가정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안내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의 2023 어스아워 캠페인 소등 전·후 모습. /우리금융

우리은행 플래그십 2호점 신설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 개설

우리은행은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기업 또는 자산가에 특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은행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인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은 우리은행의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

프라인 채널로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복합점포로 지난해 2월 판교역에 1호점을 개설한 바 있다.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가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1만3000개 기업과 150개 지식산업센터가 입점해 있으며 총 14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

어 기업금융과 함께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우리은행은 한단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영업점 최초로 매직글라스가 적용된 프라이빗한 상담공간과 갤러리 형태의 고급스러운 라운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 기업체와 임직원은 물론 고액 자산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한층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